2021 국립무형유산원

청춘연희

전통연희 판놀음 청춘연희

2021.5.14.(Fri) ~ 5.15.(Sat)

국립무형유산원 앞마당

© Baki

청춘 연희

전통연희 판놀음

국립무형유산원은

The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국립무형유산원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설립된 복합행정기관입니다.

무형유산의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공연장
주제별 무형유산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상설·기획 전시실
무형유산 디지털 체험관 꿈나래터
기·예능 보유자들의 삶과 예술 가치를 알 수 있는 무형문화재기념관
무형유산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 할 수 있는 교육공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무형유산 문화복합공간 라키비움 책마루 등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시설들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즐기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소통형의 열린 공간을 꿈꾸고 있습니다.



전통연희 판놀음

청춘 연희

5. 14. Fri

시간	공연명	내용	공연팀	장소
17:00 – 18:30	체험&버스킹 가면놀이	클레이폼으로 종이가면 꾸미기, 직접 만든 가면을 쓰고 배워보는 흥겨운 탈춤체험	놀이꾼들 도담도담	얼쑤마루 공연장 로비
19:00 – 21:00	**공연 1** 가장무도 일상을 위한 일탈	한 무대에서 만나는 전국의 탈춤 · 문둥북춤(고성오광대) 이매마당(하회별신굿탈놀이) 할미춤(가산오광대) 미얄할미(강령탈춤) 북청사자춤(북청사자놀음) 장자마리춤(강릉관노가면극) 옴중춤(송파산대놀이) 말뚝이춤(통영오광대)	천하제일 탈공작소	앞마당



일정 한눈에 보기

5. 15. Sat

장소 - 국립무형유산원 일원

시간	공연명	내용	공연팀	장소
13:00 – 13:50	체험&버스킹 가면놀이	클레이폼으로 종이가면 꾸미기, 직접 만든 가면을 쓰고 배워보는 흥겨운 탈춤체험	놀이꾼들 도담도담	앞마당
14:00 – 15:00	**공연 2** 구룡이나르샤 일상을 위한 기원	강릉단오굿을 재해석한 공연 · 문門–부정不淨–오신娛神 –세존世尊–도드리 '류流'	전통연희 창작집단 '푸너리'	앞마당
15:00 – 16:00	체험&버스킹 덜미야 놀자	남사당놀이 '덜미'의 박첨지거리와 이시미거리를 재창작한 공연 · 여보 마누라–이시미거리	연희공방 음마깽갱	앞마당
16:00 – 17:00	**공연 3** 삼도농악 일상을 위한 신명	서울·경기, 전라도, 경상도 지역의 농악을 하나로 엮은 공연 · 삼도농악 판굿 – 삼도개인놀음 (상쇠놀음–설장고–북놀음– 소고놀음–기놀이–12발놀이 등)	한누리 연희단	앞마당

※공연 일정 및 장소는 우천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상을 위한 일탈

가장 무도

2021. 5. 14. 금

오후 7시 국립무형유산원 앞마당

코로나19로 일상을 잃어버린 지금,
탈춤이라는 일탈을 통해 일상의 회복을 기원한다.
가장 높은 신명의 판! 가장무도를 벌려보자!



한 무대에서 만나는
전국의 천하제일 탈꾼들

가장무도에서 이북, 경기, 경남, 경북, 강원 지역까지 전국의 국가무형문화재 탈춤을 만난다. 각 지역의 탈춤을 통해 우리 땅에서 넘쳐나는 문화적 다양성을 확인 할 수 있다. 말뚝이, 할미, 문둥이, 옴중, 장자마리 그리고 사자 등 이름 없는 군상들이 풀어내는 저마다의 사연 속에서 삶의 애환, 절망을 신명으로 이겨내는 우리를 만날 수 있다.

고성오광대 中
문둥북춤

문둥북춤은 문둥병(한센병)으로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과 내면의 고통을 극복하며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춤으로 표현한다. 단순히 문둥이를 흉내내는 것이 아닌 문둥이 내면의 고통과 절망을 대사 없이 탈짓, 몸짓, 춤짓만으로 표현하며 결국 신명으로 풀어내는 과정을 춤으로 보여준다.

하회별신굿탈놀이 中
이매마당

턱이 없는 가면을 쓰고 바보스럽게 움직이는 이매는 옷고름 풀어헤치고 관객들에게 한번 놀아보자고 연신 웃음을 짓는다. 타고난 장애를 장애로 받아들이지 않고, 슬픔을 슬픔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들의 웃음을 비웃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산오광대 中
할미춤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네 옛 여인들의 모습을 재담과 몸짓을 통해 표현한다. 바람난 영감과 모자란 아들을 두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을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웃음으로 승화시켜 공감과 재미를 전한다.

강령탈춤 中
미얄할미

난리 통에 헤어진 영감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할머니의 로드무비이다. 오랜 수소문 끝에 영감을 만나지만 이미 첩이 있어, 할미는 쫓겨나 강물에 투신하게 된다.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며, 과거와 현재가 별반 다르지 않은 민중의 삶을 보여준다. 이 공연에서는 할미가 영감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장면을 재담, 춤, 노래로 함께 보여준다.

북청사자놀음 中
북청사자춤

북청사자놀음은 함경남도 북청 지방에서 정월대보름에 행해지던 사자놀이,
곧 탈놀음으로 북청군 전 지역에서 행해졌다. 북청사자는 연초에 백수百獸의 왕으로
벽사할 만한 힘을 가졌다고 믿어지는 사자로서 잡귀를 쫓고 마을의 평안을 빈다.

강릉단오제 관노가면극 中
장자마리춤

포대자루와 같은 포가면을 전신에 쓴 장자마리가 요란하게 먼지를 일으키며,
불룩한 배를 내밀고 놀이마당을 돌아다니며 제의적 춤을 춘다.
불룩한 배는 여성의 다산을 상징하고, 머리에 상투는 남성을 상징하여,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몸에는 해초와 곡식을 달아 풍어와 풍농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송파산대놀이 中
옴중춤

옴중은 중으로서의 고결한 풍모 대신, 얼굴에 옴이 옮고 시루밑 벙거지와 검정 칙배
장삼을 입은 불결한 행색을 하고 있다. 요란한 등장과 당당한 춤사위를 보여주지만
갈수록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며 온갖 수모를 당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험상궂은
귀면탈과 바라춤, 용이 승천하는 용틀임 춤 등을 통한 벽사신적 성격이 담겨 있다.

통영오광대 中
말뚝이춤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본인의 자존감을 표현하여 거짓양반들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굴복시켜 개과천선케 하는 통영오광대 말뚝이"
놀음마당의 기승전결이 뚜렷하고 풍자적 요소가 짙게 묻어 있다.
말뚝이춤은 판의 중심에서 단조로운 춤사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평등의
시선으로 관객과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공연팀 천하제일탈공작소

연출
허창열, 이주원

출연 탈꾼
허창열 _ 국가무형문화재 고성오광대 이수자
이주원 _ 국가무형문화재 하회별신굿탈놀이 이수자
김문겸 _ 국가무형문화재 강릉단오제 이수자
김태호 _ 국가무형문화재 가산오광대 이수자
나신영 _ 국가무형문화재 통영오광대 이수자
이효녕 _ 국가무형문화재 송파산대놀이 전수자
박인선 _ 국가무형문화재 강령탈춤 이수자
민현기 _ 국가무형문화재 북청사자놀음 전수자
김재민 _ 국가무형문화재 북청사자놀음 전수자

악사
장단 _ 황민왕, 김태영, 조봉국
피리 _ 성시영, 이민형
대금 _ 이야람
해금 _ 김용하
아쟁 _ 윤겸
가야금 _ 이준
퉁소 _ 최민

기획
티끌

제작 PD
박용휘, 김은정

협력
신재훈(연출), 박재식(음향)

일상을 위한 기원

구룡이 나르샤

2021. 5. 15. 토

오후 2시 국립무형유산원 앞마당



새로운 미래를 향한 강릉단오굿의 재해석

구룡이 나르샤는 '해동육룡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이시니'라는 용비어천가 1장에 나오는 구절 중 일부에서 가져온 말로, 해동에 있는 여섯 마리의 용이 하늘로 날아올라 하는 일마다 하늘의 복이 따른다는 의미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전통은 '앞으로도 이어나갈 만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전승을 말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네 인생의 청請–오娛–송送의 과정을 헛되이 두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문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문을 열어놔야 들고 날고 출입을 할 수 있다고 여기고 문을 여는 과정이다. 사방찬과 도랑게 소리를 군무와 함께 연행함으로써 신에게 우리의 시작을 고한다.

부정不淨

부정은 모든 신을 맞이하기 전에 불결하고 부정한 것을 깨끗이 씻어 버린다는 뜻으로 연행되는 과정이다. 신이 좌정하실 신성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함과 굿을 진행하는 연희자들의 부정, 구경 오신 손님네들의 부정을 가셔내는 정화 과정이다.

오신娛神

신을 기쁘게 하는 오신은 동해안 지역의 무악중의 가장 난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무악의 백미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음악성을 나타내는 장단인 드렁갱이장단을 기반으로 오색초롱 불을 밝혀 조심히 가시라는 의미의 초롱등춤을 연행한다.

세존世尊

세존은 석가모니의 다른 이름으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뜻이다. 굿에서는 생산을 관장하는 신이기도 하다. 개개인의 가정에 자손이 없는 집은 자손을 점지해 달라고 빌고, 자식이 많은 집은 수명장수를 빌며, 모든 자손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세존님께 기원한다. 이어 스님이 속세에 내려오는 과정을 나타내는 중춤과 바라춤이 연행된다.

도드리'류流'

"다시 돌아서 들어간다"의 '도드리'와 "흐르게 두다"의 '류'의 합성어로 전통을 과거로만 보는 것이 아닌 미래지향적 전통을 새롭게 만들자는 의미로서 신명나는 타악의 향연이 펼쳐진다.

공연팀 전통연희창작집단 '푸너리'

김운석 _ 국가무형문화재 강릉단오제 이수자
이건환 _ 국가무형문화재 강릉단오제 이수자
정지용 _ 국가무형문화재 강릉단오제 이수자
성휘경 _ 국가무형문화재 강릉단오제 이수자
박혜미 _ 국가무형문화재 강릉단오제 이수자
김민석 _ 국가무형문화재 강릉단오제 이수자
원현식 _ 국가무형문화재 강릉단오제 전수자
김영우 _ 국가무형문화재 강릉단오제 준회원

일상을 위한 신명

삼도 농악

2021. 5. 15. 토

오후 4시 국립무형유산원 앞마당



일상을 치유하는 신명

'삼도농악'은 서울·경기, 전라도, 경상도 지역의 농악을 하나로 엮은 작품이다.
작품 구성은 초창기 사물놀이(김덕수, 김용배, 이광수, 최종실)의 작품 구성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각 지역의 독특한 가락과 몸짓들을 해체·분석하고,
동시에 대중의 흥미를 이끌 수 있게 재조합하였다.

삼도농악판굿

서울·경기 웃다리농악의 다양한 상모짓과 무대적 구성의 세련된 진법,
경북 빗내·무을농악의 역동적인 북가락과 군사의 훈련을 모티브로 군사㚇진법,
호남 우도농악 섬세한 몸짓과 보는 이에게 풍요로운 여유를 주는 푸진진법 등,
각 지역별 몸짓과 가락 그리고 진법을 특징을 살려 삼도농악을 연행한다.

삼도농악 개인놀음

전라 우도의 설장고와 부포놀음, 서울·경기웃다리농악 버나놀음,
경북 무을·빗내농악의 북놀음과 기놀음 등 각 지역별 농악의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
개인놀음을 펼치며 신명을 절정으로 이끈다.



공연팀

한누리 연희단

기획/진행

방성혁 한누리 연희단 대표
이성재 前국악방송 PD

출연진

쇠 _ 주영호, 문상준, 이정우, 박가은
징 _ 장우찬, 임채은
장고 _ 이은미, 윤여주, 김영은, 이유리
경북북 _ 정재호, 윤현진, 이소은, 김재민, 김광수, 장수경
채상소고 _ 안병진, 김지혜, 김민규, 성유경, 송동윤, 이강우, 현정석
태평소 _ 황민왕

체험&버스킹

가면 놀이

클레이폼으로 종이가면 꾸미기, 직접 만든
가면을 쓰고 배워보는 흥겨운 탈춤체험

공연 시간·장소

2021. 5. 14. 금
오후 5시 - 오후 6시 30분
공연장 로비

2021. 5. 15. 토
오후 1시 - 오후 1시 50분
국립무형유산원 앞마당

공연팀

놀이꾼들 도담도담



덜미야 놀자

남사당놀이 '덜미'의 박첨지거리와 이시미거리를 재창작한 공연
· 여보 마누라-이시미거리

공연 시간·장소

2021. 5. 15. 토
오후 3시 - 오후 4시
국립무형유산원 앞마당

공연팀

연희공방 음마깽갱



STAFF

연출_김지훈
공연PD _하윤아
무대감독 _박준평
무대기계감독 _라경채
음향감독 _이재정, 장현석
조명감독 _박재섭, 최영웅
하우스매니저 _서혜진, 최세영

국립무형유산원 오시는 길



대중교통

버스

전주터미널(고속·시외버스) 하차시

- 고속버스터미널, 불교회관 및 시외버스터미널에서 1000번 버스 이용
- 190번 버스 이용
▶ 남고사입구 하차
- 국민은행금암지점에서 429번, 725번, 752번, 785번 버스 이용
▶ 국립무형유산원정류장 하차

기차역 하차시

- 전주역첫마중길 정류장에서 1000번 버스이용
▶ 남고사입구 하차
- 택시이용(약 20분 소요)

자가용

호남고속도로

- 전주IC↔국립무형유산원(35분 소요)

경부고속도로

- 동전주IC↔국립무형유산원(20분 소요)

주차

- 서편 주차장 50대, 동편 주차장 100대

공연문의 및 예약

공연예약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 www.nihc.go.kr
공연문의 063-280-1500,1501
전석 무료 공연 (공연 10일 전부터 예약 가능)

네이버 TV국립무형유산원 채널
https://tv.naver.com/nihc